

가을·행락철 산악사고 해마다 ‘급증’

3년간 826건 중 9~11월 집중...각별한 주의 요망

산행 음주시 과태료...“음주금지 단독산행 삼가”

가을·행락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광주지역 산악사고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리한 산행으로 부상을 당해 119산악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산악구조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2015년 206건, 2016년 284건, 지난해 33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을철인 9~11월에 산악사고가 30% 이상 집중됐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12시40분께 무등산 국립공원 중머리재에서 산행 중이던 임모(49·여)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소방헬기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12시30분께는 무등산 중봉 얼음바위 부근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유모(49·여)씨를 소방헬기로 병원에 후송했다.

이처럼 가을철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 등산장비 등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또 술을 마신 후에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는 절대금지하고 단독 산행은 삼가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

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도·군립 공원 정상부나 탐방로,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적발 시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산을

오르기 전에 부상·골절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산행 시엔 2~3명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상예보를 미리 파악하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를 선택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등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이어 “만일 실족사고가 났을 땐 다친 부위가 있다면 등산 스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고 옷으로 묶어 고정한 뒤 구조대를 기다려야 한다”며 “구조당국

이 신고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등산객들은 각 산의 위치 표지판 등을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가을철 등산객이 많이 찾는 무등산·어등산·금당산·제석산·삼각산 등 5개 등산로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한다. 간이 응급의료소에서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으로 이뤄진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활동을 펼친다. /김동수기자 kds6400@kjdaily.com



발화 원인을 찾아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18일 철거가 예정된 서구 영주중아파트에서 화재현장 감식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화재감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최우수팀은 내일 열리는 전국 화재감식 경연대회에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예리 기자 kki@kjdaily.com

장석웅 道교육감 “시험문제 유출 송구”

목포 모 고교 최소 2차례·4명 공유

최근 목포 모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전남도교육청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18일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학생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불신, 불안감을 조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일선 학교 평가 업무 담당자들의 보안 USB(이동식 저장장치) 사용, 평가관리실 CCTV 설

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평준화 지역 고교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상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평준화 지역 고교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상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하면 교사를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시험문제 유출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학생 4명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유출 경위

가 먼저 드러난 A학생은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영어교사 연구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2018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출력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2학년 영어시험 출제를 위해 저장해둔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파일’이 함께 유출됐다.

A학생은 출력한 문제를 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영어시험 하루 전인 지난 4일 교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출은 그 전에 발생했다.

B 학생은 추석 전 연구실 컴퓨터 바탕 화면에 저장된 ‘중간고사 원안’ 폴더를 열어 자신과 C 학생 이메일로 전송했다.

두 학생은 “실마였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돼 두려웠다”고 진

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학생은 지난 4일 이메일을 통해 유출된 출력물을 보고 휴대전화로 찍어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은 교사에게 자료를 열어봐도 되는지 물어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해 교사의 묵인 의혹도 불거졌다.

교사는 학생이 열람 여부를 문의한 자료를 시험문제 파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알고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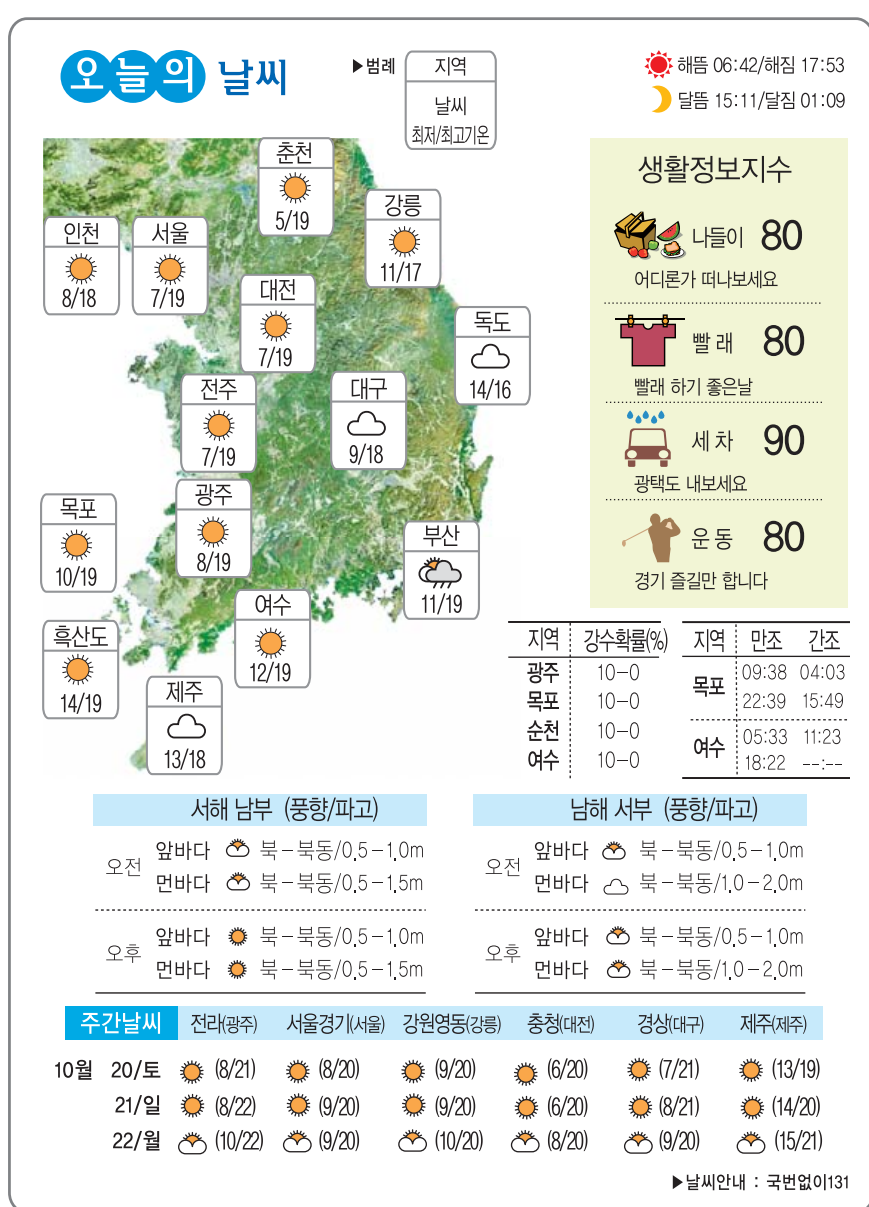
경찰은 메일서버 관리 업체 등을 상대로 메일이 추가로 전송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유출된 문제를 낸 교사, 공동출제 한 문제를 취합하는 교사 등을 상대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과거 시험 성적 분포도를 분석해 특별히 성적이 오르는 등 특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목포=강효종기자



무등산 단풍 첫 관측...평년보다 이틀 빨라

국립공원 무등산이 단풍으로 빨갛게 물들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무등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다. 이는 작년(10월20일)과 평년(10월20일)에 비해 2일 빠르다.

단풍 절정시기는 지난해 11월2일, 평년 11월3일로 올해는 이달 말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낙엽수는 일반적으로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9월 이후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광주지역 9월 평균최저기온은 18도로 평년보다 0.2도 높았으며, 10월1일~17일 평균최저기온은 11.4도로 평년보다 1도 낮아지면서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한편, 첫 단풍은 산 전체로 보아 정상에서부터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단풍 절정은 산 전체로 보아 약 80% 물들었을 때를 말한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광주여대 대학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광주여대 대학원은 오는 22일부터 2019학년도 전기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여대 대학원은 특화전 전공과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대·교육대·사회계발대학원으로 구분되며 각 전공분야의 전문 이론과 실무형 강의를 지향하고 있다.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중 정원 내 선발 인원은 석사 93명·박사과정 7명이며,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정원의 인원을 별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11월16일까지 광주여대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11월16일까지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면접은 11월23일 또는 24일에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대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kwu.ac.kr>)에 게시된 모집요강을 참고하거나 대학원 행정실(062-950-3801)로 문의 가능하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공모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출품수 4점 이내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공표작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장정불요)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접수기간 2018년 10월 26일(금) 까지 (도착분)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T. 062-234-2323

심사장소 광주예총전시실

심사일시 2018년 11월 1일(목)

심사발표 2018년 11월 5일(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광주사협 홈페이지

<http://www.kjphoto.or.kr>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자상(예정)

<http://www.kjdaily.com>

전시장소 광주예총전시실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17번길 20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전시기간 2018년 11월 26일(월) ~ 12월 1일(토)

시상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예정

시상내역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기타사항

• 특전 -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점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입상, 입선작은 주최측에 귀속하여 협회 또는 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o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초대작가 16"×20"액자 제출, 출품시(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입요망)

• 작품반출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사진예술문화 창달과 저변확대를 위한 제10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뜻있는 전국사진동호인들의 많은 응모와 성원 바랍니다.

주최 <광주매일신문 · C21>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남도지회, (사)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